

캄보디아 10 월 기사 모음

(자료: 프놈펜 포스트)

하랄음식 제공기로(10/3)

캄보디아는 하랄 음식을 만들어 아랍에미리트(UAE)에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UAE 세이까 루브나 무역장관이 밝혔다. UAE 무역장관은 평화궁전에서 훈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방문이 캄보디아에 투자하기 위한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내년 5 월에도 이번의 방문에서 만난 캄보디아측 상대측과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투자 계획의 진행을 위해 재차 방문할 것이라고 하였다. 훈센 총리는 UAE 의 캄보디아 투자 지원계획을 환영하면서 캄보디아의 쌀 산업이 번성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양국가간의 무역이 앞으로 증대되기를 바랐다.

하랄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이번의 첫 계획에 대해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가 하랄 음식을 생산할 원재료가 풍부하고 이 산업이 캄보디아의 무슬림 마을의 고용 창출과 나아가 캄보디아의 노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노동부 차관이며 캄보디아 무슬림 대표인 오스마 핫산은 현재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80 만명 이라고 한다.

캄, 국내기업 중국으로 쌀 수출 진행(10/5)



[사진 : 지난 8 월 반떼민찌이주의 한 논을 농부가 걸어가고 있다.]

캄보디아 멘사론 수출입 회사는 중국으로 향미를 수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회사의 쯔꼐 부사장은 회사가 중국으로의 쌀 수출 10,000 톤을 계약하였다고 한다.

이 회사는 내달부터 농민들로부터 향미 벼를 수매하여 브레아뷔히어주에 있는 회사의 도정공장에서 도정후 수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공장은 시간당 4~5 톤의 쌀 생산이 가능하다. 이 공장 이외에도 회사는 프놈펜에 시간당 30 톤 규모의 도정공장도 보유하고 있다. 수매벼는 바탐방, 반떼민찌이와 브레아뷔히어 주등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첫 수출은 11 월이나 12 월에 1,000 톤을 시작으로 하여 프놈펜 항만과 시하누크항만을 이용하여 수출할 것이라고 한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농민들이 재배하는 다양한 품종에서 벼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한다.



회사측은 “이번 수출은 한걸음씩 진전하여 총 10,000 톤을 수출할 것이며, 3~4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같은 다른 시장도 물색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시엠립의 도정협회 센릿회장은 오랜 기간동안 일반적으로 재배하여 온 품종이여서 바탐방, 반떼민찌이, 시엠립 등지에서 10,000 톤의 향미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취약점은 시장에서 바라는 품질의 벼를 농부들이 재배하지 못하고 있어 무역상 등을 통해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8 월말 중국의 상무부 쟈데밍 장관과 캄보디아의 상무부 째쁘라싯 장관은 매년 중국으로 300,000 톤의 쌀을 수출하기로 한바 있다.

볍씨 품종 등록 관리 추진(10/4)

농민들의 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수출용 볍씨와 국내 시장용의 볍씨를 등록관리하기로 하겠다고 한다. 짬사룬 상무부 장관은 제 2 차 캄보디아 중소기업연맹 쌀 포럼에서 정부는 다양한 볍씨를 국내용과 수출을 위한 용도로 관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7~8 종의 품종을 시작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쌀 수출업자는 특정 품종의 볍씨가 부족하여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의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9 분과위원장이며 포럼의 후원자인 렘분행씨는 캄보디아 농부들의 수확 관습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농부들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12 년 9 월말까지 3 분기 동안 캄보디아는 123,000 톤의 쌀과 167,000 톤의 벼를 공식적으로 수출하였다. 그러나 인근국가로의 불법적인 벼수출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벼수출의 70%는 베트남으로 그리고 30%는 태국으로 나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현재 캄보디아는 쌀 생산을 위한 벼 구매 비용으로 3 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벼의 구매를 위해서는 10 억 달러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정공장에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10/10)



[사진 : 짬퐁짬 바띠에이군의 도정공장에서 왕겨를 이용한 발전설비가 가동되고 있다. 김우택제공]

바탐방의 캄보디아 쌀 도정협회는 바탐방에 바이오메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발전은 1,000 만 달러를 들여 10MW 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캄보디아 도정협회(CRMA) 회장이며 바이딩 쌀 수출회사의 대표인 뿌뿌이 회장은 말레이시아 기업과 왕겨를 이용하는 바이오메스를 이용한 전력 공장건설에 합의하였다고 전한다. 이처럼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도정설비는 가공비용을 낮추어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장은 바이딩사를 포함한 협회의 공장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으로 2013 년말이나 2014 년부터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산자부의 관리는 이 외에도 바이오메스 전기가 끄라체 주에서 사탕수수 생산 공장에도 26 MW 급의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공장에는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주고 건설을 장려하여 나갈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 대비한 실행이 필요(10/12)



[사진 : 올 4 월 뽀레이벙주의 물이 없어 갈라진 땅에 한 농부가 나무를 심고 있다.]

세계은행의 김진용 총재는 11 일 기후변화가 캄보디아를 포함한 일부의 아시아 국가에서 우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이들 국가가 자신들의 경제를 잘 관리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자신은 지난 6 개월 동안의 보다 심각해진 기후변화를 보고 놀랐다고 일본의 도쿄에서 열린 2012 IMF-WB 연례 미팅에서 밝혔다. 지구 온난화가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총재는 가뭄이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만들어온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과학자의 97% 이상이 인류가 만들어온 기후변화는 놀랄만한 수준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김총재는 세계은행이 기후변화에 대해 완화와 적응의 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기후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가뭄으로 캄보디아 24 개 주중 11 개 주에서 수천헥타르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세계은행은 캄보디아의 경제성장 전망을 최근 수정하여 6.9%에서 6.6%로 낮추었다. 그리고 2013 년도는 6.7% 성장으로 전망하고 있다.